

#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

권세은\*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신)유라시아주의: 팽창주의와 고립주의의 중첩 |
| II.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독해 | V. 결론                         |
| III. 현대 러시아의 지정학 사고의 전개 |                               |

## | 논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러시아 지정학의 전개에서 유라시아주의로의 수렴을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을 통해 고전과 비판 지정학의 논쟁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지정학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러시아 지정적 실재에 대한 이해는 유라시아에서 발생하는 인과적 힘과 기제가 특정 조건에서 현실화하는 사건을 통해 이를 인식하는 방법에 기반한다. 키예프 공국 시기부터 형성된 공간적·사회적 기제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해석하는 시도는 서구주의, 유라시아주의, 사회주의, 국제주의 등 다양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론은 역사적 사건들의 규칙적 연쇄를 탐지하고, 이를 사유 속에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설이다. 소련해체 이후 다양한 시각을 종합한 유라시아주의가 경험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고립주의 경향이 팽창주의보다 지정적 실재를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은 러시아의 지정학 연구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지만,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정학적 사건을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판 실재론적 설명모델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 지정학, 러시아 지정학, 비판적 실재론, 유라시아주의, 고립주의

\*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러시아 지정학<sup>1)</sup>의 전개 과정 그리고 유라시아주의 지정학과로의 수렴을 비판적 실재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경험(실증)주의와 구성(해석)주의를 종합한 철학적 입장인 비판적 실재론으로 고전지정학과 비판지정학의 논쟁을 해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지정학과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정학’이란 용어는 시공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sup>2)</sup> 특정 시공간에 형성되고 있는 지정적 실재에 대한 연구가 지정학이라고 볼 수 있다.<sup>3)</sup> 지정학은 한때 강대국들의 영토확장 논리로 동원된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제국주의 및 침략주의 도구로 비난받았지만, 오늘날 국제협력과 갈등을 이해하는 틀로서, 침략의 논리에 대항하는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지정학이 학문적·정책적으로, 학술적·대중적으로 서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 공간은 유라시아대륙이었고, 주요 행위자는 소련/러시아였다. 19세기 말부터 국가와 영토의 관계가 학문의 대상이 되었을 때, 유라시아대륙을 둘러싼 투쟁에서 대륙지정학과 해양지정학 그리고 이념지정학이 형성되었고, ‘그레이트게임’으로서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봉쇄 개념으로서 림랜드(rimland) 지정학이 등장했다. 한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소 영토분쟁과 같은 정치과정은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국

1) 러시아에서 지정학(геополитика) 용어는 학문논리를 차용한 이론 지정학(геополитология), 응용형태인 지전략(геостратегия), 이념인 지정학주의(геополитизм)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권세은 2022, 171). 이 논문에서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할 경우 ‘지정적(地政的)’으로, 학문적으로 개념화되었을 때 ‘지정학’으로 사용한다.

2) “소련의 붕괴는 20세기 최악의 지정적 재앙”(Путин 2005)으로, “숨겨진 축복”(Цым бурский 1993)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정학의 귀환: 수정주의 세력의 복수”(Mead 2014), “바보야, 문제는 지정학이야!”(Гётц 2016) 등 지정학에 대한 문구가 이를 반영한다.

3) 지정학은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전제로 하기에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 성격이 변하여 ‘geo(geo)’는 ‘земля’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정치적·경제적·정보통신적·문화적 및 종교적·군사적·인지적 영역 등 경쟁이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장(поле)을 의미하는 예도 있다. 오늘날 공간은 특정 지역의 정치·경제 영역을 넘어 인간의 의식영역 및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투쟁의 장을 의미한다.

주의와 반제국주의와 같은 이념 중심의 인식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면서 지정학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sup>4)</sup> 1991년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어 유라시아 세력의 일체성이 붕괴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이란과 함께 지정학 측면에서 수정주의의 핵심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등장했다. 특히 2008년 이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정학의 시대가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시대적 특성을 세계화 또는 지정학으로 단순화하면서 그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정학이 세계화를 대체했다기보다는, 세계화와 지정학이 중첩되면서 개념들이 혼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영토의 획득과 확장을 위한 투쟁을 중심에 두었던 고전지정학과 연결 및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초점을 두는 신자유주의 지정학이 중첩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화와 지정학을 대항 관계보다는 중첩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sup>5)</sup>

오늘날 외교·군사·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관련한 연구는 지정학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한편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서 세계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던 틀인 사회주의의 자리에 지정학이 대신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권세은 2022). 미국과 서유럽의 국제관계 이론이나 지정학이 러시아에 소개되면서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 지정학은 정치학, 특히 국제관계학 맥락에서 발전하면서 비판적 접근보다는 고전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현실주의와 안보주의와 같은 전통적 이론들이 학문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4) 공간에 대한 객관주의 틀에 대한 비판, 세계-지역-지방의 새로운 결합과 해체를 그 원인으로 본다(콜린 플린트 2007, 6-7). 테일러는 지정학 용어를 자주 사용한 키신저의 영향, 게오폴리틱(Geopolitik)에 대한 비판적 연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미국에서의 보수주의의 등장을 그 원인으로 본다(Taylor 1989). 프랑스에서는 1978년의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에 대한 이해 틀로써 지정학이 등장하였다(이대희 2002, 453-454).

5) 바넷(Barnett)의 연구에서 오늘날의 세계화와 지정학의 중첩은 신자유주의 지정학의 광범위한 사례이다. 그는 세계를 사이버네틱스 개념에서 빌린 '규칙 집합'을 기준으로 '핵심'과 '갭'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시스템 관리자'로서, 이는 미국만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운영해야 하는 규칙과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정학 세계관은 자유시장, 개방성, 경제 통합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이상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Roberts et al. 2003).

이다.

러시아 지정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그 형성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성장’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마르크스주의·신자유주의 전통이 중첩되면서 근대·소비에트·세계화 지정학이 상호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신유라시아주의(неоевразийство)<sup>6)</sup>로 나타나고 있다. 지정적 사고의 구체화한 형태로서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여러 방식으로 개념화된다. 러시아-슬라브 문화와 내륙아시아 유목 문화의 통일체, 러시아 정교회와 이슬람의 통일체, 대륙 국가의 통합, 대러시아 개념의 대안 등이 그 예이다. 실용적 측면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의존성에 중점을 두면서 대륙 전체에 걸쳐 형성된 경제적·정치적 교류를 강조한다. 이때 유라시아공간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호의존성·연결성으로 구소련의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sup>7)</sup>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내외 정치과정에서 형성된 친서방주의·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학계에서는 서구지정학 중심의 학문 경향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가치’를 반영하는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비서구 지역에서의 지정학 발전 과정에서 보면 특이한 일이 아니다. 물론 지정학의 ‘국립학과’에 대해 논란은 있다. 세계화의 지지자들은 사회과학의 초국가성 및 보편성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학문의 특수성을 부정하지만, 민족적 독창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역적·문화적 차이에 의해 조건화된 학문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사회문화적 맥락성을 강조하는 지정학 논의에서는 공간에 대한 상대적 인식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객관적 보편성을 강조하거나 사건적

6) 국내에서 국가 정체성 모색, 문명론, 지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라시아에 대한 연구(박혜경 2014; 배규성 2003; 우준모 2005; 이문영 2019; 정희석 2014 등)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주의의 소극적 또는 고립적 경향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7) 본 논문에서 ‘유라시아주의’와 ‘신유라시아주의’ 용어를 문맥에 따라 혼용한다. 한편 ‘유라시아’는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의미로 정의된다. 지역연구나 지리학에서는 주로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상에서는 서구식 근대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적, 역사적, 지정적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실용적 유라시아주의에서는 탈이념적인 외교 및 경제 정책의 세트로 정의되어,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유라시아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임을 보여준다(Vinokurov & Libman 2012).

실재로서 현재적 공간을 강조하든, 상대적인 지정학의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지정학 논리 개발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정적 인식이 동등하게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떤 지정학 논리를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과정을 존재론적 실재성, 인식론적 상대성, 판단적 합리성을 핵심으로 하는 비판적 실재론<sup>8)</s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유라시아주의 지정학에는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제국주의에서 소극적이고 고립적인 국민국가 경향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회색지대가 있다. 러시아 지정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논리로 두긴(Дугин)의 팽창주의 경향은 러시아 외부, 특히 서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크렘린 궁의 견해를 대변하는 주장은 아닐지라도,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Силаев 2021). 특히 이는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침공 등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반면에 츠부르스키(Цыбульский)는 두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정학 패러다임 즉 유라시아주의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출발점과 결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과정은 자연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실재(reality)’에 대한 인식적 탐구 활동이다. 러시아의 지정적 실재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며 항상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이 실재는 인간의 이성 밖에 존재하는데, 이 독립적이고 자동적인 대상에 대한 이해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타동적 대상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설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국주의·문명주의·푸틴주의 등과 같은 논리는 존재론 측면에서 경험적 존재론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인식론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한계를 비판적 실재론의 층화된(stratified) 존재론의 가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층위의 기제들이 서로 환원되는 것도 있지만 환원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 서로 다른 층위의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고(층화된 인과기제), 각각의 층위는 하위의 층위로 환원될 수 없는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ies)

8) 연구 대상에 비판적 실재론적으로 접근한 사례는 많지 않다. 주로 행정학 분야(이영철 2006; 신희영 2019; 홍민기 2021; 변기용 2022), 사회학 분야(김명희 2022), 종교 분야(임영동 2018; 신재식 2000)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관계 및 지정학 분야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변기용 2022, 85).

오늘날 러시아 외교정책에 내재한 지정적 사고는 팽창주의에서 고립주의 경향까지 넓게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및 압하지야 분쟁 개입, 시리아 내전 개입, 카자흐스탄 내정 간섭, 조지아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일련의 지전략에 대한 사고작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 정책인가, 아니면 영토의 완전성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고립주의 전략인가 하는 질문이 러시아 지정학을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II.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sup>9)</sup>적 독해

지정학은 공간에 대한 사고와 실천을 포괄하는 넓은 맥락에 있다. 오늘날 (신)현실주의의 경향은 지역을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개념화하는 반면, 비판 경향은 이를 상호 주관적 실체로 이해한다(Kofroň 2012). 지정적 실재에 대한 입장에서, 고전 경향은 영토성과 국가성을 강조하고 비판 경향은 담론성 및 시공간 및 상황의 구속성에 중점을 두어 차별화한다. 고전지정학에서는 지리와 그에 대한 추론이 국가, 영토, 군사와 같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초기의 지정학은 주로 장기적인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군인이나 정치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군사 전략적 요소에 집중되었다. 지정학 연구 방법에서는 지리학이 귀납적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국제관계학은 일반적으로 연역적 방법에 의존한다. 고전지정학은 공간을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동맹 이론과 세력 균형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1980년대 이래 지리가 불변하고 객관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특성이 사

9) 1970년대 중반 로이 바스카(Roy Bhaskar)에 의해 주장된 이 이론은 1990년대에는 서구의 변증법적 전통과의 비판적 대화를 통해 인간해방의 쟁점을 다룬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으로, 2000년대에는 실제의 궁극적 본성과 삶의 의미 및 목표를 논의하는 '초월적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transcendental dialectical critical realism)'으로 확장되었다. 비판적 실재론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저작(Bhaskar 2007; Collier 2010; 이기홍 2019; 이기홍 2021)을 참고한다.

회와 정치에 영향을 행사하여 인간과 국가 행위를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비판받아 왔다. 지리와 공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재구조화되고 사회적 관계에 따라 재생산된다는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했다.<sup>10)</sup> 이러한 경향은 유럽 중심주의 그리고 영토, 국가, 군사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비판지정학은 비유럽의 지정학적 아이디어와 정부 형태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탈식민주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도 증가하는 국가의 역할과 군사 및 전략 영역을 경시하고, 반지정학적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민족지학적 연구의 부족이 지적되며, 이는 ‘상상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국가의 경험이 어떻게 인식되고,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속성을 가진 공동체에 포함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된다(Kelly 2006; Окушев 2014).

비판지정학은 철학과 사회이론에서 발전된 비판적 관점을 지정학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지정학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 지정학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을 제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비판지정학은 상대주의에 의존함으로써 주제를 축소하고, 국가의 힘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는 고전지정학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지정학을 구성주의 또는 비판적 실재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혹은 고전 및 비판 지정학을 종합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신고전주의 지정학은 비판지정학이 제국주의, 인종주의, 결정주의 경향의 지정학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과정에서, 냉전 이후의 지정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설명 변수를 생략한 학문 체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Torkameh et al. 2014). 이러한 논리는 비판지정학이 ‘반지정학’<sup>11)</sup>일 뿐만

10) 지리와 공간에 대한 고전지정학의 인식을 비판지정학에서는 담론(discourse) 개념으로, 프랑스의 지리학적 지정학에서는 재현(representation) 개념으로 비판하고 있다. 현실주의에 근거한 전통적 지정학관을 비판하면서, 사회[푸코의 ‘에피스테메’]·개념[데리다의 ‘차연’]·존재[들뢰즈의 ‘리즘’]의 탈 구축에 기반한 포스트모던 접근 방법(Kelly 2006)에 기초하여 비판지정학이 전개되었다.

11) 반지정학은 새로운 것을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헤게모니적 지정학(물질적 또는 담론적)에 대한 저항에 초점을 맞춘다. 페미니스트 지정학은 반지정학의 한 형태로, 조각들을 해체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많은 장소에 대한 더 넓은 정의

아니라 ‘반지도학’, ‘반환경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화된 지정학 대신 세계적 갈등과 경제발전에서 지리학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비판지정학은 지리학이 물려받은 지정학을 탈식민지화하기 위한 더 큰 투쟁의 일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결과 학문 분야가 아닌 정치화된 논쟁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비판지정학은 지정학 도구 세트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지정학에 따르면, 지정학과 공간 개념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Fard 2021). 이러한 관점은 지정적 질서가 단순히 객관적인 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관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접근법은 고전과 비판 두 패러다임을 결합하여 세계 정치를 이해하고 글로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는 기여로 간주한다. 구성주의 지정학은 고전 및 비판 지정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잡적이고 역동적인 국제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반영한다.

지정학의 두 경향이 상호 보완적이며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Kelly 2006; Окунев 2014).<sup>12)</sup> 고전적 접근은 국제관계 이론과 외교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국가 전략이 물리적 지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의 형성, 강대국의 대 전략, 국제분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반면, 비판적 접근은 고전적 접근의 약점을 드러내고 해방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전통적인 방법의 주제를 문제화하여 새롭게 활성화한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와 ‘포스트모던’ 사이, 또는 정치학과 정치지리학 사이의 학문적 장점을 결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입장은 모두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데, 이는 물리학의 상보성 원리와 유사하다.

이러한 시도들은 고전지정학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철학 및 사회이론의 관점을 통합하여 지정적 현상을 포괄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통합 접근은 지정학의 복잡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의 힘과 역할 및 국제 체제의 작동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

를 포함한다(Koopman 2011).

12) 그 외 다음의 자료 참조. Bordonaro, F. (2024), "Beyond Neoclassical and Critical Geopolitics", <https://msu.ru/divisions/faculteti/polit>. (2024년 10월 30일 검색)



나 이러한 경향들은 종종 환원주의 방법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증화된 존재론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층적 접근이 제기되고 있다(Torkameh et al. 2022).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복잡한 국제관계와 지정적 사안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증화된 존재론<sup>13)</sup>을 가정하는 비판적 실재론은, 객관주의 경향의 고전지정학과 사회구성주의 경향의 비판지정학 모두가 지정적 실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두 방법 모두 존재론 또는 인식론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존재론적으로 고전적 방법은 ‘순박한 실재론(naive realism)’을, 비판적 방법은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을 가정하며, 인식론적으로는 모두 인간중심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고전지정학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비판지정학은 ‘존재는 하지만 과학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정적 실재의 독립적 성격인 자동적 대상(intransitive object)을 부정하고, 타동적 대상(transitive object)만을 세계 자체로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정적 실재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낸다.<sup>14)</sup>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은 관찰할 수 있는 표면적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구조와 인과기제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정적 실재는 단순히 현상이나 현상에 부과된 인간의 구성물이 아니라,

13) 경험주의에서는 실재가 경험적 영역으로 통합되어 이해되지만, 비판적 실재론에서는 세계가 계층적으로 이해된다. 첫 번째 계층은 실재층(The Real)으로, 이는 조건에 따라 사건을 발생시키는 실제적 기반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실제층(The Actual)으로, 이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세 번째는 경험층(The Empirical)으로, 이는 인간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부분을 말한다. 객체들은 실제적 영역에서 고유한 속성과 인과적 힘을 가지고 활동한다. 그러나 이 객체들은 다른 객체들과의 상호작용과 간섭을 통해 그 활동이 촉진되거나 저지되며, 이를 통해 특정 상태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나 사건은 실제 영역에서 발생하며, 그 중 일부가 인간에게 경험으로 인식된다. 사회적 맥락에서 실제적 영역은 관계 및 그 관계의 산물들의 총합으로 설명된다. 이 구조는 사회적 구성 요소나 그들의 실천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는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면서도 독립된 실체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기홍 2019, 153).

14) 연구자는 이론적 사유를 통해 경험을 발생시킨 사건의 인과기제로서 객체의 구조와 속성 그리고 인과적 힘을 추론하고 재구성한다. 이때 재구성된 객체에 관한 진술이 이론이다. 따라서 이론에서 재구성된 객체는 실재하는 객체와 동일하지 않다(이기홍 2019, 174).

지정학이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인식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변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공간의 물리적 실체는 우리의 사고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지전략이나 지정적 사상이 세계에 개입하여 물리적 변동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정적 실재에 대한 학문적 및 실천적 행위가 이루어지며, 객관화된 실재에 대한 가정은 다른 공간 또는 시간의 초점을 가진 연구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정적 실재에 대한 이론에서는 고전 또는 비판이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이론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지정학에서 찾을 수 있다.<sup>15)</sup>

지정적 실재(reality)는 인과적 힘, 발생 기제, 자연적 필연성, 경향 등으로 우리의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 방식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속성과 역사적 실체(historical practice)를 동시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정적 실재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 인식되며, 인과기제(causal mechanism)와 경향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지리적 영토적 속성과 사회구성적 속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과 구성주의적 설명(constructive explanation)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비판적 실재론이 설명력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적 시각은 사건에 대한 경험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이 평가되고 선택된다. 즉, 우리는 경험의 영역을 통해 실재를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분석하여 그 배후에 있는 인과기제와 경향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지정학은 유라시아대륙 내 특정 공간에서 형성된 지

15) 이론은 인간의 제한적인 경험을 매개로 하여, 현상을 발생시킨 실제 영역을 인간의 사유 속에서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연구자는 사유를 통해 경험을 발생시킨 사건인 '자동적 객체'의 인과기제로서, 객체의 구조와 속성, 그리고 인과적 힘을 추론하고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객체인 '타동적 객체'에 관한 진술이 바로 이론이다 (이기홍 2019, 174). 따라서 객체는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객체에 대한 추론은 사유 속에서 가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허구이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불완전하다고 해서 오류라고 할 수도 없다. 모든 이론이 동일한 정도의 오류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론의 효용성은 인식 주체가 객체의 존재와 운동의 결과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 및 사회 속성의 추상적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속성은 국가의 문화적 특성으로 해석되며, 국가는 단순한 법률 공동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와 질서가 지배하는 문화 공동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러시아 지정학의 이론화 과정에서의 보편성은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에 뿌리를 둔 보편적 특수성의 실재적 인과 구조에 의해 보장된다. 이론의 러시아화는 이러한 보편적 특수성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보편적 특수의 이론화 과정은 학문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과학 이론은 초기의 전 이론 단계를 거쳐 이론 수용의 초기 및 성숙 단계를 지나, 고유이론 또는 이론의 자국화<sup>16)</sup>를 모색하는 창조적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각 국가나 지역이 자신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이론을 구축하면서 국제관계와 지정적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실재는 연구 주체이자 대상이므로, 이 지식은 객관성과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내포한다. 이데올로기를 인정한다고 해서 절대적 상대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국가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실체에 대한 해석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양한 지정학 논리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실재는 각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보편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구속적 보편성일 뿐이다(김현구 2020, 113).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하우스호퍼의 생존공산이론이나 대륙블록이론,<sup>17)</sup> 일본의 황도주의<sup>18)</sup>와 팔굉일우, 중국의 중간지대론<sup>19)</sup>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16) 예를 들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서구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형 개념과 사고에 기반한 고유이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천하체계론, 도의현실주의, 관계이론, 그리고 공생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의 유포가 형성되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이론의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유희복 2024).

17) 이는 반앵글로색슨 연합체 형성을 목표로 하여 독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인도 등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라시아대륙을 하나의 섬으로 간주하는 운동으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소련 간의 4국 군사동맹에 대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채수도 2020, 15).

18) 일본 지정학은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실천에 동참하면서 영미적 사고를 탈피하고 일본 고유의 황도적 사고와 고전을 통해 일본 특색을 갖춘 접근을 강조한다(채수도 2020, 22).

19) 냉전 시기 중국은 중간지대라는 지정적 개념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미

는 각국의 입장이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정적 실재의 인식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Ⅲ. 현대 러시아의 지정학 사고의 전개

소련 해체 이후 지정학은 군사전략, 국제관계, 문화영역 등 다양한 분야<sup>20)</sup>에서 인기 있는 학문으로 부상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 학부, 특히 군사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학은 정치학, 철학,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며, 특히 정치학이 이 연구와 교육을 주도<sup>21)</sup>하고 있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지정학 내재한 서구중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학과 형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문의 국가주의 접근은 서구의 논리와 개념에 기반을 둔 반서구중심 서구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으나, 공간적·사회적 대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인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지정학은 공간적·사회적 과정에서 형성된 특성을 이해하려는 학문이기에 필연적으로 지역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문이 객관적이면서도 상대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론이 지역 맥락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편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가 핵심 논쟁점으로 드러난다. 국가 지정학과는 세계화와 복잡한 공간 해석을 위해 보편 접근

---

국의 외교정책을 중간지대 국가들의 경제와 영토를 복속시켜 패권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중간지대로, 지정적 경쟁의 무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중간지대론은 ‘경계지’나 ‘림 랜드’와 같은 지정학 개념과 유사하게 두 세력의 영향권이 충돌하는 지역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재준 2022, 396).

20) 다양한 지정학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지정학 전문센터, 지정학 포털, 지정학 아카데미, 과학 아카데미 전쟁 및 지정학 역사센터, 에너지 및 지정학 연구소, 지리 연구소 지정학 연구실 등이 있다. 또한, 국제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신보수주의 성향의 이즈보르 클럽, 비영리 단체인 러시아 국제문제 위원회, 고르바초프 재단 등이 대표적인 클럽으로 꼽힌다. Дергачев (2022), “ГЕОПОЛИТИКА”, <https://dergachev.org/Russian-encyclopaedia>. (2024년 10월 5일 검색)

21) 2010-2011년 조사에서 따르면, 지정학은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에 도입되었다. 75개 대학에서 국제관계 및 정치학의 학위 과정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27개 대학에서는 지정학이 정치학 또는 국제관계 전공의 교과목으로 제공되고 있다(Mäkinen 2016, 293).

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러시아의 독특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고유한 지정학과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sup>22)</sup>이 대립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후자의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 지정학이 정치학 및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현실주의와 장소성 논리에 따라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지정적 실재는 광활한 영토, 동서 문명의 교차, 다양한 종교와 민족 구성, 그리고 자연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국경<sup>23)</sup>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재에 대한 인식은 사건을 통해 인식되는 타동적 실재에 대한 관념, 즉 지정적 사고로 나타난다. 19세기부터 러시아 정치사회 과정의 분석에 공간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정치지리학과 국제관계의 논리에서 지정적 사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세기에는 강, 바다 및 해양 문명에 대한 연구, 영토 보호에 관한 연구, 유럽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문명론, 군사전략론, 지리결정론과 같은 지정적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 지정학 사고에서 일린(Ильин)의 지리적-공간적 유기체 개념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견해는 지정학자 켈렌(Kjellén)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Вок 2006). 일린은 국가지도자가 특정 시대의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자신의 의지와 자기 갱신 능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국가이며 전략적인 통일체라고 강조했다(Ильин 2006, 27). 또한, 일린은 종교와 도덕성에 기반한 법치와 양심의 회복을 제안하며, 전체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제3의 길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주권을 강화한다는 러시아 지정학의 기본 사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던 틀인 사회주의의 자리를 지정학이 대신하면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논의는 고전지정학에서 비판지정학 논리, 제국주의에서 국민국가의 지정학 논리, 그리고 갈등 담론에서

22) 사회과학은 맥락 민감성을 지니고 있어 진공 상태의 공간을 가정할 수 없으며, 탈 맥락적이고 통시대적 보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성을 갖는다(김현구 2020).

23) 러시아 인터넷 백과사전 'РУВИКИ'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경(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합병된 새로운 영토를 제외하고) 길이는 총 60,932km이며, 이 중 육지 경계는 22,125km, 해상 경계는 38,807km에 달한다. РУВИКИ, [https://ru.ruwiki.ru/wiki/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_граница\\_России](https://ru.ruwiki.ru/wiki/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_граница_России). (2024년 10월 5일 검색)

협력 담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다.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과 러시아의 목표,<sup>24)</sup> 역사적 흐름,<sup>25)</sup> 서양과 동양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 지정학은 자아와 타자, 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두 가지 주요 논리, 즉 서구주의와 (신)유라시아주의로 정리될 수 있다.

서구주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형성된 친서방, 유럽 지향의 흐름이다. 이는 ‘코지레프 독트린(доктрина Козырев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신화에 기초하고 있었다. 첫째, 러시아가 중부 유럽에서 철수하면 서방이 러시아의 경제 부흥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서구 모델이 러시아에 빠르게 뿌리를 내려 사회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이다. 서구주의자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흔히 서구 공동체라 불리는 연합체와 통합함으로써만 러시아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적·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논리에서 서구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문명이며, 러시아 사상은 본질적으로 서구의 사상이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이러

24) 치간코프(Tsygankov 2003, 110-112)는 현대 러시아 지정학의 흐름을 팽창주의자, 문명주의자, 안정주의자, 지리경제학자, 그리고 서구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민족-불세비즘, 신유라시아주의, 러시아 민족주의 및 서구주의로 보고, 극단을 피하는 러시아 발전의 새로운 지정학 모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25) 포토츠키야(Потоцкая 2018)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러시아 지정학은 서구주의, 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 유라시아주의로 구분된다. 현대 러시아 지정학은 구밀료프의 신유라시아주의, 두긴의 민족-불세비키 지정학, 춤부르스키의 고립주의 지정학, 그리고 지리경제학파로 정리된다.

26) 세 가지 주요 방향(Апенкамппф 2005)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서구 지향 방향으로, 이는 서구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강조한다. 둘째, 반서구 방향으로, 이는 서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동양의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신유라시아주의로, 이는 동서양의 균형을 옹호하며 러시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두 방향 모두와의 연결을 활용하는 접근이다.

27)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서구주의는 러시아를 유럽 군주국의 충실한 일원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르 1세는 유럽의 혁명을 억압하기 위해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신성 동맹’을 맺었고, 19세기 후반에 알렉산드르 2세와 같은 서구주의자들은 헌법상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에서 러시아를 서구와 동일시했다. 소비에트 체제의 서구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스탈린주의의 ‘왜곡’을 ‘정화’하고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또는 ‘인간적’ 버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에트 붕괴 후 서구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과 같은 공유된 가치에 기초하여 러시아와 서구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주장했다(Andrei & Pavel Tsygankov 2010, 6376).

한 믿음은 국내적으로 범죄화된 경제, 다수 국민의 빈곤, 법 집행 시스템의 약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지위 하락과 나토의 확장 등으로 인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반서구주의와 민족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

유라시아주의는 문명론에 기반하여 지정적 실재를 문화적 대립의 관점에서 개념화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러시아 역사와 문화의 토대를 수호하고 러시아와 세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공간을 차지하는 특별한 민족지학적·문화적 세계로 보았다. 이 사상은 일린, 트루베츠크이(Трубецкой), 사비츠키(Савицкий), 구밀료프(Гумилев)에 의해 전개되었다. 소련 해체 후, 이 논리는 두긴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현재의 단극 세계가 새로운 양극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이 방향으로만 유라시아가 진정한 지정적 주권의 전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새로운 양극성만이 해양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다극화, 즉, 각 국가와 지정적 블록이 자신의 가치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다극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서 러시아는 동쪽도 서쪽도 아닌 유라시아 서부와 동부의 합성적 통일, 대륙의 중심인 심장지대이다.

한편, 유라시아주의는 문명주의 및 국권주의(державничество)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명주의자들은 러시아를 독자적인 문명으로 간주하며, 세계에서 러시아가 특정한 사명을 지고 있으며,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명주의는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третъеримство]’ 논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에 문명주의자들은 슬라브족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며, 이들의 범슬라브주의 이데올로기는 제정러시아의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 사회주의 문명주의자들은 서구에 대항하여, 일시적으로 세계 혁명의 교리를 지지하기도 했다(Нартов 1999). 한편, 국권주의는 자유를 정치적 독립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중시한다. 국권주의자들에게 평화란 권력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물로 간주되며, 이들은 강력한 국가 없이는 러시아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Tsygankov 2015, 74).

유라시아대륙에서 발생한 새로운 갈등<sup>28)</sup>은 러시아 내에서 유라시아주의

28) 소련의 소멸로 인해 러시아 주변부에 안보 공백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갈등들이 출현

지정학 사고의 부활을 촉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라시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대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영토·안보 중심의 고전지정학과 제3 문명 및 러시아 중심 논리가 결합하여 신유라시아주의가 형성되었고, 이는 러시아의 주요 지정학 논리 나아가 러시아학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라시아주의는 슬라브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도로 비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토의 확장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분열된 러시아 국민을 통합하며,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러시아의 위치를 찾으려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단일한 논리가 아닌 러시아 지정학 사고의 총체로서, 팽창주의에서 고립주의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구소련 지역에 대한 인식은 대륙의 제국으로 보는 확장주의 관점에서 국민국가 형성으로 보는 국가주의 관점까지 폭넓게 존재한다. 러시아 국경에 대해서는 구소련 경계에서 현 국경 보존까지,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무제한 정치·군사적 팽창에서 서구 주도 질서에 적응까지 다양한 세계관과 전략이 유라시아주의라는 틀 안에 모여 있다. 이제 어떤 경향의 유라시아주의가 러시아의 지정적 실재를 더욱 합리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IV. (신)유라시아주의: 팽창주의와 고립주의의 중첩

러시아의 현대 지정적 사고는 소련의 해체, NATO의 동진, 충격요법의 실패, 구소련 지역에서의 색깔혁명과 분쟁<sup>29)</sup>과 같은 일련의 사건[발생적 영역]

하여 불안정한 지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러시아 주변부에서는 민족 기반의 분쟁(코카서스, 몰도바, 타지키스탄, 체첸),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경쟁, 구소련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 및 테러 위협, 중국-러시아 및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문제가 주요 갈등으로 나타났다(Tsygankov 2003, 104).

29)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경국가들은 러시아가 유라시아 전략을 위해 가장 안정되어야 할 공간이다. 러시아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는 구소련 연방이나 러시아 인접 국가들의 지정적 분쟁(Abkhazia, DPR, LPR, Nagorno-Karabakh, South Ossetia, and Transnistria)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Riegl & Doboš 2018, 59-89).



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경험적 영역]을 통해 새로운 논리, 즉 신유라시아주의로 발전되었다. 특히 NATO의 구소련 지역으로의 영향권 확대는 러시아 지정적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냉전 시기 군사동맹 조약기구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WTO, 1955-1991)에 대응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49-)의 지속적인 동진은 중동부 유럽의 지정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1999년 비셰그라드 그룹 3개국의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중동부 유럽 7개국이, 이어서 서부 발칸 국가들이 일련의 협상과 절차를 통해 NATO에 합류하였다. 1999년부터 진행된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이 초기에는 러시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2008년 부쿠레슈티 NATO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에서 갈등으로 전환되었다. 이 회담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구상이 공개됨에 따라, 러시아는 기존의 '수세적 방어전략'을 포기하고 '공세적 방어전략'으로 전환하였다(신범식 2020, 45). 러시아는 지역 차원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기구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 차원에서는 BRICS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항하는 다극 체제의 형성을 기도하고 있다.

신유라시아주의는 단일한 논리가 아니며 여러 방향성을 가진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자체와 동일시되는 팽창주의 경향[유라시아=러시아]과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고립주의 경향[유라시아>러시아]이 중첩되어 있는 현 상황[유라시아≥러시아]에서 그 방향성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방향성은 영토를 둘러싼 지역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팽창주의와 고립주의의 시각을 구분하는 핵심은 러시아 주변지역에 대한 개념화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에 있다. 이 지역의 지정적 실재는 세력 간의 충돌지역(shatterbelt), 조석 지역(приливно-отливная земля), 완충지대(буферная зона), 근외지역(ближнее зарубежье),<sup>30)</sup> 방역선(cordon sanitaire),<sup>31)</sup> 변경국가(border states, limitrophe states) 등 다

30) 이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14개 구소련 공화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외국에서는 러시아의 제국적 야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РУВИКИ, [https://ru.ruwiki.ru/wiki/Ближнее\\_зарубежье](https://ru.ruwiki.ru/wiki/Ближнее_зарубежье). (2024년 10월 5일 검색) 푸틴은 이 지역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선언했으며,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간으로 간주한다.

양하게 타동적 대상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유라시아주의의 팽창적 경향은 켈렌, 매킨더, 스파이크만, 하우스호퍼 등의 고전지정학과 헌팅턴, 브레진스키 등 현대 보수주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유라시아대륙의 심장부(Heartland) 이론, 대륙세력(теллу로크ратия)과 해양세력(талассократия)의 대립과 같은 이항대립을 근거로 삼는다. 특히 문명 간 충돌의 불가피성에 관한 주장과 대륙세력 이론에 기반한 이런 경향이 러시아 대중의 지지를 크게 받았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주가노프, 지리놉스키 등 좌우익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표자들에 의해 주로 채택되었다(Колосов 2011, 31-32).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주제의 불확실성과 학문적 엄밀성의 부족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유라시아주의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서부와 동부를 통합하여 동서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특별한 지정적 유기체로서 ‘중간제국’이라는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Нартов 1999). 러시아는 유럽화를 통해 서구에 완전히 굴복하거나, 또는 그 특별한 역사적 길로 돌아가 서구로부터 물질적·정신적으로 독립된 러시아-유라시아라는 특별한 세계를 건설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두 길에 따르면, 이즈마일(Измаил)에서 케르치(Керчь)까지의 흑해 연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러시아는 통제 주체가 불분명한 긴 해안선을 갖게 되어 독립국으로서의 존재가 불확실하다(Душин 1997). 그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 제국의 건설을 옹호한다. 이런 논리는 크렘린의 공식 이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푸틴 정권의 내부 서클 일부 인사들이 그로부터 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크렘린은 선전 캠페인에서 그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 없이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제국이 될 수 없다는 브레진스키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며, 소련 외교 전략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제국주의가 제정 러시아, 소련, 그리고 소비

31) 이 용어는 정치적·군사적 완충지대 혹은 국가그룹의 지정적 개념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 오스만, 러시아 제국이 붕괴한 공간에 형성된, 독일을 포위하고 러시아를 서유럽과 격리하려는 프랑스 동맹시스템을 의미한다. 방역선은 1920-1930년대에 공산주의 사상의 서방 침투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색깔혁명과 포스트 소비에트 정치·경제 블록 및 지역 연합의 형성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의 일부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에트 이후의 시대로 이어진다고 본다.<sup>32)</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엘친과 푸틴 사이의 지정적 사고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Lynch 2016, 5).

고립주의 경향은 이념보다는 영토-공간적 관점에서 유라시아주의를 정의한다. 츠부르스키의 ‘러시아-섬(Россия-остров)’ 논리는 러시아를 ‘육지 심장부의 섬’으로 비유하여 독특한 지정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 비유는 팽창적 범대륙주의와 대립하며, 러시아가 외부 세계와의 복잡한 관계보다는 국내 문명의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러시아 발전의 전통적인 제국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고립주의 개념을 발전시키며, 자금자족이 가능한 러시아의 지정적 특성을 강조한다. 소련해체를 러시아가 제국의 길을 택했던 역사의 특별한 시기를 끝내고 17세기 국경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이를 패배가 아닌 기회로 여겼다. 역사적 및 문화적으로 러시아 혹은 유럽 문명에 속하지 않는 ‘육상 해협(сухопутный пролив)’의 넓은 띠에 의해서 서유럽과 분리된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끌림과 반발의 길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순환을 멈추고 내부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는 러시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러시아의 중심을 동부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을 주장한다(Цьмбургский 1993). 이 논리에 의하면 러시아가 물리적·지리적 장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영국의 ‘화려한 고립(splendid isolation)’과 유사하게 지정적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Цьганков 2015).

고립주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러시아의 경계를 둘러싼 지역인 ‘육상 해협’인 ‘변경지역(Лимитроф)’<sup>33)</sup> 그리고 확장된 ‘대 변경지역(Великий Лимитроф)’<sup>34)</sup>에 대한 지정적 개념화이다(Силаев 2021, 129). 유럽에서 아

32)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 유라시아주의자, 친푸틴이나 반푸틴 세력 등 대부분 엘리트는 러시아가 제국주의의 주요 후계자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Lynch 2016, 10).

33) 로마인들이 국경 군대의 배치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한 이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 왔다. 1918년부터 1939년까지 러시아제국 지정적 공간의 재편성에 따라, 이 용어는 러시아 외곽, 핀란드와 폴란드를 포함한 서부 지방의 영토에서 새로 형성된 국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소련 해체 후에는 14개 구소련 공화국을 지칭하게 되었다(Квициани et al. 2018).

34) 변경지에 대한 다른 연구자인 하툰체프는 변경지역의 생성과 사용은 강력한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적용된 지정학 기술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지정적 공간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지정학 기술을 사용하는데, 역사적으로 먼로 독트린과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지정

시아를 가로질러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대륙 내에 독특한 섬의 특징을 부여하는 거대한 변경지 벨트는 발트해 국가에서 동유럽을 거쳐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신장, 몽골 중앙아시아를 포괄하고 한반도까지 이어진다(Цыбмбургский 2011, 75-84). 이러한 지정적 위치는 러시아에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해협 벨트’의 민족들이 충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내부 문명의 강화를 통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내부 발전을 촉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섬’ 위치 덕분에 서방과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극동과 우랄-시베리아 지역을 문명적 핵심과 연결하는 것은 주요 지정학 과제<sup>35)</sup>가 되며, 아시아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지정적 방향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접근은 ‘러시아-유라시아’가 아닌 ‘유라시아 속의 러시아’라는 새로운 개념화를 가능케 하며, 러시아의 독자적 발전 경로를 제시한다. 이 논리는 문명적 요인보다는 지리경제적 요인에 기반하여,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새로운 지리경제적 상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Ашенкампф & Погорельская 2005, 19-20). 이러한 관점은 러시아가 단순히 영토확장을 넘어서, 지정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소통과 경제적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러시아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추

되고 있다(Хатунцев 2011, 86-98). 또한 그는 유라시아대륙을 지리·문화적 개념인 문명보다 더 큰 메타 문명(meta-civilizations), ‘북부의 메타 문명(유럽-러시아)’, ‘동양의 메타문명(중국-인도)’, ‘남부의 메타문명(아랍-페르시아, 아프리카)’으로 나누고 변경벨트는 동유럽, 코카서스, 트랜스코카서스,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핀란드에서 한국까지 이어지는 공간의 띠’라고 말한다(Горелова, Г. and В. Рябцев (2017), “О концепции Великого Лимитрофа”, <https://politconservatism.ru/articles>. (2024년 10월 1일 검색)].

- 35)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지리학자 세묘노프-텐샨스키(Семёнов-Тян-Шанский)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세묘노프-텐샨스키는 제국 건설의 우선순위를 유럽 러시아에서 우랄-시베리아와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지리결정론에 근거하여, 러시아가 광대한 영토를 소유함으로써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개발하여 영토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중심지를 예카테린부르크로 옮기는 것과 아시아에서 문화적 및 경제적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 우랄, 알타이, 바이칼, 투르크스탄의 네 개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Исаев 2006, 110).

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지정적 경계는 무엇보다도 국경의 확장을 의미하며, 가능하다면 소련의 경계선으로의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팽창주의자들은 유라시아주의를 대서양 중심의 해양 세력에 대항하는 대륙 세력의 확장으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영토에 대한 통제를 유라시아 제국의 필수 재산이자 세계적 권력 보장의 조건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항하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반면, 고립주의는 변경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고 유럽의 로마-게르만 문명과의 직접적 접촉을 구축하려는 제국의 충동이 유럽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려는 유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이는 제정러시아와 소련제국의 역사에서 반복되며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립주의는 러시아의 내적 발전을 강조하고 제국의 확장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며, 내적 발전에 필요한 대외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연한 동맹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한다.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취한 동맹 정책이나, 일극 사회주의의 ‘평화공존론’과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러시아 고립주의의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정부의 지정적 정책 또한 서구에서 비난하는 팽창주의보다는 공세적 방어전략이나 고립주의 경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외부와의 갈등보다는 내적 발전과 안정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 V. 결론

오늘날 지정적 실재에 대한 연구인 고전 및 비판 지정학은 경험적 실재론 및 상대적 인식론에 기초한 환원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연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경향에 대한 대안으로, 총화된 존재론을 가정하는 비판적 실재론이 자리한다.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에서 핵심은 지정적 현상의 발생 기제와 맥락에 대한 이해이다. 지정학은 지정적 실재에 존재하는 실체와 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구조들이 가지는 인과

적 힘과 경향성을 이해하는 지적인 작업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건들의 규칙적 연쇄를 탐지하고, 이를 사유 속에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설로 볼 수 있다.

현상을 발생시키는 지정적 기제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형성된다. 특정 영토에 형성된 근대적 특성 즉 국민국가의 조건인 안전보장, 국가발전, 문화창달, 그리고 상호연결성의 세계화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농업시대와 산업시대에는 물리적 영토의 확보와 자원의 통제가 중요했던 반면, 세계화 시대에는 정보, 경제적 영향력, 문화적 파급력 등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제들은 현대 국가가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안전보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국가발전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의미한다. 문화창달은 국가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고, 상호연결성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한다. 행위와 개념의 시공간 의존성으로 인해 다양한 지정적 사고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정적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구조는 행위에 선행[구조의 선(先)존재성]하여 존재하며, 행위와 상호작용은 구조의 재생산이나 변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정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구조와 행위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독특한 지정적 인식을 발전시켜 왔다. 서유럽은 베스트팔렌 질서의 개념에 기반하여, 다극성을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세력 균형과 안전은 힘의 행사에 대한 억제와 동일시되며, 힘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는 방법이다. 반면, 러시아는 고정된 국경이 거의 없는 광대한 지형에서 다양한 민족 간,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지정적 감각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힘에 대한 억제가 오히려 파국을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주변의 제국들과의 관계에서 거대한 완충지대를 지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16세기 말 동란시대, 19세기 나폴레옹 침입, 20세기 독일의 침입 등의 역사적 사건에서 얻은 경험의 결과이다. 러시아는 힘이 강할 때는 강대국으로서의 확신에 기반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하

는 경향이 있었으며, 힘이 약할 때는 내면에 품고 있는 잠재적 힘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했다(Kissinger 2016, 67). 이러한 전략은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지정적 환경에 기인하며, 현재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체제 전환기 동안 서구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따라 형성된 경제적 지원, 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경험적 영역을 통해 지정적 실재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경제 침체, NATO의 동진, 국제적 지위 하락, 구소련 지역의 분쟁 등과 같은 경험적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해석의 논리가 대두되었다. 소련 해체 이후 일련의 경험적 사건들은 유라시아주의의 부상을 촉진하였다. 이렇게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지정학과 자리 잡으면서,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포함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실체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러시아 영토의 주변 지역에 대한 인식이다. 광대한 영토와 긴 국경선을 가진 러시아는 국가 안전을 위해 완충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여러 차례 서쪽으로부터의 침략을 경험하였고, 이는 완충지대를 형성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NATO의 동쪽으로는 확장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러시아는 지정학적 완충지대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키예프 루시 시대부터 형성된 공간적·사회적 기제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해석하려는 시도는 팽창적 유라시아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지정적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확장된 영토와 연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며, 러시아의 역사를 광대한 영토확장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반면, 다른 경향은 러시아 지정적 정체성을 ‘루시(Русь)’라는 무정형 또는 유동적 형태 보다는 16세기에 불가강과 우랄산맥을 넘어 진행된 역사적 과정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이는 고립적 유라시아주의로, 러시아의 정체성을 외부 세계와의 관계보다는 내부 역사와 문화의 진화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오늘날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에서 발전한 다양한 지정학적 개념을 포괄하며, 팽창주의에서 고립주의, 제국주의에서 국가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지

정확적 스펙트럼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논리와 개념이 중층적으로 결합하면서 특정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학문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라시아주의의 논리적 스펙트럼에서 팽창주의보다는 고립주의 경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즉, 완충지대인 ‘리미트로프’ 지역을 통합하기보다는 우호적인 지역으로 관리하여 유라시아 핵심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고립주의가 더 합리적인 접근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판적 실재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정적 사건에 대한 여러 해석 논리가 모두 평등하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인간은 이론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적 합리성(Judgmental Rationality)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이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이론이 실재를 더 잘 설명하는지는 이해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특정 이론이 지정적 실재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경험적 관찰과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이론의 설명력이 실제 현상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판단하고, 그 이론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국제 환경에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요새-러시아’ 시나리오<sup>36)</sup>를 현실화하는 과정이다(Melville 2018, 97-112). 이 시나리오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단결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정치적 경쟁과 권리 제한을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그러나 우호적인 변경 지역의 보존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 행위자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 안보 지원, 경제적 및 기술적 자원의 확보,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창출이 필수다. 이러한 요소들은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치

36) 2006년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에서 국제 환경의 역학을 고려하여 2020년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 시나리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실용전략인 ‘크렘린 책략(Кремлевский гамбит)’,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요새 러시아(Крепость-Россия)’, 국제적 게임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는 ‘러시아 모자이크(Российская мозаика)’, 유엔 지도하 다극체제에서 러시아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새로운 꿈(Новая мечта)’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은 ‘크렘린 책략’이 향후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예측했다(Мельвиль & Тимофеев 2008, 66-85).



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판적 실재론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고전지정학과 비판지정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 접근과, 이를 토대로 한 러시아 유라시아 지정학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론적 문제 제기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사건을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판 실재론에 기반한 설명 모델[서술, 분해, 가추(abduction), 역행추론(retroduction), 이론들과의 비교, 구체화와 맥락화]을 ‘유라시아주의 지정학’, ‘완충지대 지정학’ 등의 연구에 적용하는 시도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권세은 (2022). “현대 러시아 학계의 지정학: 형성과 특징.” 『슬라브학보』, 제37권, 제3호, pp. 169-198.
- 김명희 (2022). “탈진실 시대 사회적 고통과 실재론적 질적 연구의 가능성: 5·18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 접근.” 『사회와이론』, 제43집, pp. 199-243.
- 김현구 (2020). “한국 사회과학의 한국화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54집, 4호, pp. 107-134.
- 미즈우치 도시오 편 (2010). 『공간의 정치지리』, 심정보 역, 푸른길.
- 박혜경 (2014).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노어노문학』, 제26권, 제4호, pp. 377-401.
- 배규성 (2003). “러시아 대외정책의 새로운 사상적 기초로서 신유라시아주의.” 『국제정치연구』, 제6권, 제1호, pp. 85-115.
- 변기용 (2022). “비판적 실재론의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함의: 실용적 질적 연구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혼합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p. 79-125.
- 신범식 (2020).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29권, 1호, pp. 37-69.
- 신재식 (2000). “신학·과학·비판적 실재론.” 『종교연구』, 19집, pp. 35-54.
- 신희영 (2019). “정책평가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비판적인 다원주의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2호, pp. 109-142.
- 우준모 (2005).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 유라시아주의의 확립과 실현.” 『국제정치논총』, 제45권, 제1호, pp. 255-280.
- 유희복 (2024).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구축시도와 21세기 국제질서: 이론과 권력의 중첩적 동학.” 『아태연구』, 제31권, 제1호, pp. 6-50.
- 이기홍 (2019).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한울아카데미.
- \_\_\_\_\_ (2021).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담론201』, 제24권, 제1호, pp. 73-121.
- 이대희 (2002). “현대 프랑스 지정학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0권, pp. 453-478.
- 이문영 (2019).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제국의 지정학.” 『슬라브학보』, 제34호, 제2호, pp. 179-214.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1호, pp. 71-90.
- 이재준 (2022). “중국의 지정학적 담론과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 미중 전략 경쟁과 중소 분쟁 시기 비교.” 『한국정치연구』. 제31집. 제3호, pp. 385-414.
- 임영동 (2018). “과학적 신학을 위한 비판적 실재론.” 『기독교철학』. 제25호, pp. 171-201.
- 정희석 (2014).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에서의 유라시아주의적 경향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7호. 제1호, pp. 88-113.
- 채수도 (2020). “전전(戰前) 일본지정학의 성립과 전개.” 『대구사학』. 제139권, pp. 113-153.
- 클린 플린트 (2007).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지정학회 역. 도서출판 길.
- 홍민기 (2021). “비판적 실재론과 사회과학철학에서 인과성의 구조와 정책연구에의 함의.”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pp. 125-159.
- Bhaskar, R. (2007).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이기홍 역. 후마니타스.
- Collier, A. (2010). 『비판적 실재론-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 이기홍 역. 후마니타스.
- Kissinger, H. (2016).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 이현주 역. 민음사.
- Fard, R. (2021). “Towards a New Concept of Constructivist Geopolitics. Bridging Classical and Critical Geopolitics.” *Centra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Vol. 15. No. 1, pp. 26-57.
- Kelly, P. (2006). “A critique of critical geopolitics.” *Geopolitics*. Vol. 11. No. 1, pp. 24-53.
- Kofroň, Jan. (2012). “Geopolitika na pomezí geografie a mezinárodních vztahů Mezi prostorem intersubjektivním a objektivním.” *Mezinárodní Vztahy*. Vol. 47. No. 2, pp. 57-78.
- Koopman, S. (2011). “Alter-geopolitics: Other securities are happening.” *Geoforum*. Vol. 42. No. 3, pp. 274-284.
- Lynch, A. (2016). “The Influence of Regime Type on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the West’, 1992-2015.”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9. No. 1, pp. 101-111.
- Mäkinen, S. (2016). “Geopolitics Teaching and Worldviews: Making the Future Generation in Russia.” *Geopolitics*. Vol. 19. No. 1, pp. 1-23.
- Mead, W.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No. 93, pp. 75-79.
- Riegl, M. and B. Doboš (2018). “Geopolitics of secession: Post-Soviet de facto States and Russian geopolitical strategy.” *Central European Journal of*

-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Vol. 12. No. 1, pp. 59-89.
- Roberts, S. et al. (2003). "Neoliberal Geopolitics." *Antipode*. No. 35, pp. 886-897.
- Taylor, P. J. (1989). *Political Geography World-Economy: Nation-State and Locality*. London: Longman.
- Terrence, W. et al. (2014). "The Three Critical Flaws of Critical Geopolitics: Towards a Neo-Classical Geopolitics." *Geopolitics*. Vol. 19. No. 1, pp. 19-39.
- Torkameh, A. et al. (2022). "A Critical Realist Reading of Critical Geopolitics." *Geopolitics Quarterly*. Vol. 18. No. 1, pp. 1-43.
- Tsygankov, A. (2015). "Russi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hat should it be like?" *Comparative Politics Russia*. July, pp. 65-83.
- Tsygankov, A. (2003). "Mastering space in Eurasia. Russia's geopolitical thinking after the Soviet break-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6. No. 1, pp. 101-127
- Tsygankov, P. and A. Tsygankov (2010). "Russia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Encyclopedia*. (edit) Robert A. Denemark. Vol. X. Hoboken, NJ: Wiley-Blackwell Publishers, pp. 6375-6387.
- Vinokurov, E. and A. Libman (2012). "Eurasia and Eurasian Integration: Beyond the Post-Soviet Borders." *MPRA Paper*.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 Ашечкамф, Н. and Погорельская, С. (2005). *Современная гео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М: Академия ГПС МЧС России.
- Вок, Г. (2006). "Современная гео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основы." *Известия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Ростов-на-Дону: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автоном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ЮФУ», pp. 68-70.
- Гётц, Э. (2016). "Это геополитика, дурачок! Анализ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Украины." *Контуры глобальных трансформаций*. Vol. 4. No. 9, pp. 6-16.
- Дугин, А. (1997).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М.: Арктогея.
- Ильин, И. (2006). *Почему мы верим в Россию: Сочинения*. М.: Эксмо.
- Исаев, Б. (2006). *Геополитика*. СПб.: Питер.
- Квициани, Д. et al. (2018).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ермина "лимитроф" 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1920-1930-х гг." *Инженерный вестник Дона*. No. 3, pp. 1-24.

- Колосов, В. (2011). “Критическая геополитика: основы концепции и опыт ее применения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ая наука*. No. 4, pp. 1–24.
- Мельвиль, А. and И. Тимофеев (2008). “Россия 2020: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сценарии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едпочтения.” *Полис*. No. 4, pp. 66–85.
- Нартов, Н. (1999). *Геополитика*. М.: ЮНИТИ.
- Окунев, И. (2014). “Критическая геополитика и посткритический сдвиг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парадигме геополитики.” *Сравни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No. 4, pp. 6–14.
- Потоцкая, Т. (2018). *Гео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 Ай Пи Эр Медиа.
- Силаев, Н. (2021). “Испытание русских геополити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теорий.” *Полис*. No. 1, pp. 125–141.
- Цыганков, А. (2015). «Островная» геополитика Вадима Цымбурского, «Остров Россия»: концептуальное наследие. *Тетради по консерватизму*. No. 1, pp. 12–20.
- Цымбурский, В. (1993). “Остров Россия(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йской геополитики).” *Полис*. No. 5, pp. 6–53.
- \_\_\_\_\_ (2011). “Это твой последний геокультурный выбор, Россия?” Цымбурский В.Л. *Конъюнктуры Земли и Времен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и хро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М.: Европа. pp. 75–84.
- Хатунцев, С. (2011). “Лимитрофы-межцивилизацио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арого и Нового света.” *Полис*. No. 2, pp. 86–98.

## 2. 기타

- Bordonaro, F. (2024). “Beyond Neoclassical and Critical Geopolitics.” <https://msu.ru/divisions/faculteti/polit>. (2024년 10월 30일 검색)
- Горелова, Г. and В. Рябцев (2017). Рябцев “О концепции Великого Лимитрофа.” <https://politconservatism.ru/articles>. (2024년 10월 1일 검색)
- Дергачев, В. (2022). “Геополитика.” <https://dergachev.org/Russian-encyclopaedia>. (2024년 10월 5일 검색)
- РУВИКИ. [https://ru.ruwiki.ru/wiki/Ближнее\\_зарубежье](https://ru.ruwiki.ru/wiki/Ближнее_зарубежье). (2024년 10월 5일 검색)

\_\_\_\_\_. [https://ru.ruwiki.ru/wiki/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_граница\\_России](https://ru.ruwiki.ru/wiki/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_граница_России). (2024년 10월 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4년 11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11월 27일 |

| 게재 확정일 : 2024년 12월 16일 |

| ABSTRACT |

## **The Critical Realist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Russian Geopolitics**

**Se-Eun Kwon**

(Dept. of Russian,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vergence towards Eurasianism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Russian geo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realism. This research aims to resolve the debate between classical and critical geopolitics through critical realism and, on this basis,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geopolitics. Understanding Russia's geopolitical reality is based on recognizing causal forces and mechanisms occurring in Eurasia, which materialize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attempt to interpret the spatial and social mechanisms formed since the Kievan Rus period through historical events has manifested in various trends such as Westernism, Eurasianism, Soci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se theories are considered hypotheses in that they detect the regular sequences of historical events and reconstruct them in thought.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Eurasianism, which synthesizes various perspectives, has gained significant empirical support. Moreover, it is believed that the tendency towards isolationism explains geopolitical reality more appropriately than expansionism. While a critical realist approach to geopolitics contributes to broadening the scope of thinking in the study of Russia's geopolitical strategie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oretical discussions can only address geopolitical events in a restricted manner. Future research based on critical realist explanatory models is needed.

▪ Key words: Geopolitics, Russian Geopolitics, Critical Realism, Eurasianism, Isolationism